

공동체 소식

▣ 대림시기

- 대림(待臨)이란 '오기를 기다린다'는 뜻인데, '도착' '도래'를 나타내는 라틴말 Adventus를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림시기는 결국 전에 계셨고(첫번째 오심) 지금도 계시고(우리 가운데 오심) 앞으로 오실(영광스러운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리며 합당하게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림시기에는 또한 **대림환을 만들고 대림초를 켜니다**. 대림환은 늘 푸른 상록수 잎으로 엮어 만드는데 이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대림초는 대림시기 4주 동안 매주 하나씩 늘려가며 켜 수 있도록 4개로 만듭니다. 반갑기 그지없는 손님을 맞으려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대림시기를 지내면 좋겠습니다. 성탄전까지 미사전 판공성사를 드립니다. 판공성사를 잘 볼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성으로 아기예수님 따뜻한 구유에 모실 수 있도록합시다.** **대영광송 하지 않습니다.**
- 본당 2020년 달력은 원하시는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 복사단 입단식 안내

- 12월 22일(일) 교중미사 중 5명의 학생들이 복사단 입단을 합니다.
- 강윤후(그레고리오), 강미정(클라우디아), 김하울(루카), 차한나(가브리엘라), 김가온(토마스)

▣ 성탄시기 미사안내 (주보 3면 참조)

▣ 12월 2차헌금/캠페인 안내

- 12월 25일 Catholic Charities 가톨릭 자선단체를 위한 모금
- **One Faith Campaign 가정별로 약정서 작성하시어 대교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앙생활봉헌서 제출 안내

- 신앙생활봉헌서 작성하신 후 미사 봉헌때나 본당신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 구역/반에서도 공지해 주십시오.

▣ 교무금 안내

- 매월 교무금은 의무입니다.
- 모든 가정에서 추가로 한 달분이상 교무금을 감사헌금으로 봉헌해 주십시오. 감사헌금 봉헌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무금 책정시 십일조의 정신을 살려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오로딸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모집

- 과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강의) 성경공부
- 원서: <http://uus.pauline.or.kr>
- 문의: 2020.1.31마감, 02-944-0819~24, 010-5584-8945

▣ 제의(chasuble)

- 본당 제의 구입을 위한 donation 받습니다.
(흰색,녹색,홍색,자색,분홍색)
- 접수 : 전례부

▣ 전례 상식

- 주일헌금은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일주일간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다시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행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 성당의 중심은 제대입니다. 또한 중앙통로는 전례때에 주로 사용합니다. 제단에 드나들거나 제대 앞을 지나가는 이는 모두 제대에 깊은 절을 해야 합니다(주교예절서 72항 참조). 독서자는 독서대에 오르기 전에 미사 전례의 중심인 제대를 향하여 절을 합니다.

▣ 전례 성가

	입 당	예 물	성 체	파 견
금 주	91	212	175	95
12/24	101	102	109	484
12/25	102	112	107	101
차 주	113	219	178	113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최은미 아네스	김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
12/24	김대연 요셉	고영방스테파노	김명은 안젤라
12/25	최은미 아네스	박태주 로마노	김명희 리드비나
차 주	김주연 세실리아	김병철 베네딕도	김경희 스킨라스티카

▣ 미사 복사

	항복사	시중복사
금 주	-	김정원 안젤라, 정예찬 미카엘
12/24	정예찬 미카엘	복사단 전체
12/25	고평원 프란치스코	복사단 전체
차 주	-	고평원프란치스코, 차민서 임마누엘

▣ 헌금 봉사자

금 주	12/24
김영진 라파엘, 김동술 요한	김병철 베네딕도, 강승호 아오스딩
12/25	차 주
차호섭 요셉, 차상욱 펠릭스	홍순익 마르티노, 김동술 요한

▣ 애찬 봉사자

금 주	6조: 문문주, 장유정, 송진희
12/25	성탄, 행사1조팀 (1-5조)
차 주	7조: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서는 기다리십니다.

- **12월 22일 주일 성당/지하식당 청소합니다. (성탄맞이)**
- 매 주일미사 후 간단하게 뒷정리 합니다.
- 청소 담당은 편의상 구역을 나눴을뿐 많은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천주교 캔사스대교구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www.kckcatholi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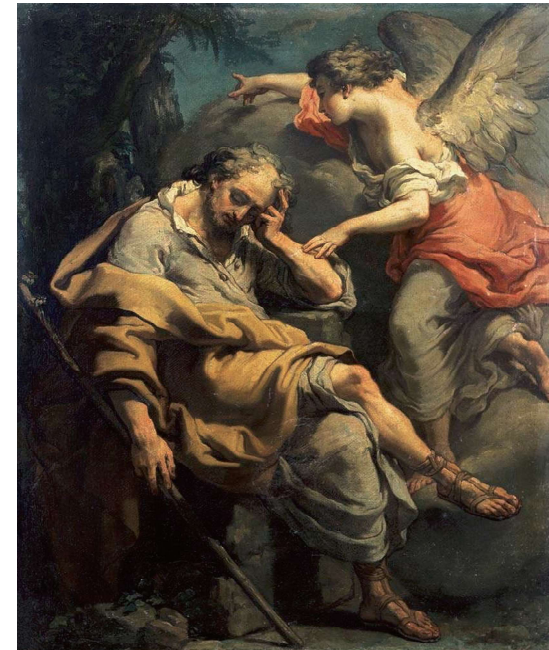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korean1481@gmail.com

회 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 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유아세례: 전례부에 신청

주일학교: 주일오전10시
나자렛관



오늘의 전례

오늘은 대림 제4주일입니다. 대림초 네 개의 촛불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 드러나는 요셉처럼 주님께 순명하고자 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분께서 오신다고 하여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의 기준을 인간의 상식보다 하느님의 뜻에 두기로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그림 묵상

요셉은 구세주 탄생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였습니다.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마태 1,24 참조), 구세주 탄생의 증인이 되었으며, 위기에 처한 성모자를 정성껏 돌보고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강생과 하느님의 인간구원 역사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굳은 믿음으로 하느님 말씀에 순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요셉과 같은 굳은 신앙과 부성애로 무장한 아버지들이 온갖 위기에 처한 가정과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영현 시문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 서 : 이사야 7,10-14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할 것입니다.>

화 답 송 : ◎ 주님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 주님의 것이라네,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온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그분이 물 위에 세우시고, 강 위에 굳히셨네. ◎
-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한 이,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는 이라네. ◎
- 그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얻으리라. 이들이 야곱이라네. 그분을 찾는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세대라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 1,1-7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

복 음 : 마태오 1,18-24

<예수님께서서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리라.>

생명의 말씀

임마누엘



이사야 예언자는 주전 8세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주전 735년 북이스라엘의 임금 페카와 아람 임금 르친은 힘을 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하려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남유다의 아하즈 임금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느님은 이사야를 아하즈에게 보냅니다. 파견된 예언자는 아하즈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느님은 남유다를 쳐내려온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이 오히려 금방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에 대한 표징을 청하라고 아하즈에게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가 주저하자 예언자는 하느님께서 몸소 표징을 주실 것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 표징이란 젊은 여인이 낳을 아들의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이에 덧붙여 이사야는 그 아이가 어른이 되기 전에 두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실제로 아람은 주전732년,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합니다.

이사야 연구가들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아기가 아하즈의 아들이거나 이사야 자신의 아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 합니다. 그렇지만 마태오복음서는 이 예언이 바로 예수 탄생을 준비하는 말씀이라고 해석합니다. 복음서는 또한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 이름의 뜻을 밝힙니다. 임마누(우리와 함께)+엘(하느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과 예수(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은 그 의미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이 또한 마태오의 해석입니다.

이사야가 아하즈에게 전한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말씀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마태오가 알려준 임마누엘의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어느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안에 담긴 신학적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며 등장하는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반복된 요청이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대림 제4주일을 맞이하여 독서와 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모두를 두려움 없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스스로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려는 하느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하느님께서 함

께 머무실 자리를 우리들의 삶 안에 마련하는 것이겠지요?! 하느님 없는 듯이 살아가는 세상 한가운데에 작은 구유 하나를 준비하는 가난한 마음, 그 마음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최승정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교리신학원 원장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별



- 별은 별입니다.
- 아기는 아기입니다
- 삶은 삶입니다.
- 별은 아기의 삶을 살아줄 수 없습니다.
- 아기는 별의 삶을 살아줄 수 없습니다.
- 하지만, 함께 할 수 있다면,
- 별은 아기가 되고
- 아기는 별이 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루카 2,11)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적응과 포기



제가 필리핀으로 오기 전까지 경험해온 성탄절은 입김이 나오는 추운 날씨에 대부분의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 놓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빨간 털모자와 털코트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한겨울 풍경이었습니

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맞은 첫 성탄절은 달랐습니다. 거리에서 들리는 캐럴은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보이는 나무들이 모두 초록색이고, 한낮에는 여전히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 모두가 여름옷을 입고 있지만 오직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만 털모자와 털코트를 입고 있는 아주 새롭고 신기하다 못해 어색하기까지 한 풍경이었습니다. 필리핀에 살기 시작하면서 신기하고 어색한 것이 성탄절뿐이었겠습니까? 날씨, 언어, 음식, 문화 등 많은 것들이 새롭고, 신기하고,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것들도 자주 접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법, 시간이 흐르다 보면 하나둘씩 적응되고 편안해집니다. 물론 단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노력함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내가 익숙했던 것들을 포기하기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힌다 해도 익숙했던 날씨, 음식, 문화 등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고집하거나 그 속에 머무르려고 한다면 결코 새로운 것에 적응하거나 익숙해질 수 없을 것이기때문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살면서 필리핀 음식에 대해 전혀 거부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플 때 땀기는 음식은 여전히 한국 음식입니다. 또한 한국에 살 때 그렇게 추위를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득문득 코끝이 찡하도록 추운 겨울 날씨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잊힌 듯해도 이미 몸속 깊이 배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지 신앙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열심한 단체 활동, 자선활동, 성경 공부, 피정 등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부족했거나 몰랐던 것들을 채우고 배워가는 것과 더불어 내 안에 이미 배어 있는 이기심이나 시기심, 부정적인 욕심 등 좋지 않은 나를 하나씩 포기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숙해지고 참다운 하느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이 저물어 가고 202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에는 '무엇무엇을 하겠다'라는 계획과 더불어 '무엇무엇을 포기 하겠다'라는 계획과 결심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양상윤 빈첸시오 신부 |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전교회 (중화관구)

성탄시기 미사안내

- 24일(화) 저녁 6시 성탄예술제(성당)
- 24일(화) 저녁 8시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 (구유축복/구유경배/구유예물)
- 25일(수) 오전 11시 주님 성탄 대축일 낮미사 (구유경배/구유예물)
- 29일(일) 오전 11시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가정축복)
- 1월1일(수) 오전 11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 1월5일(일) 오전 11시 주님 공현 대축일

- * 구유예물은 교회 전통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교구 Call To Share에 보내겠습니다.
- * 개인적으로 Call to Share에 참여하실 분들은 본당에 준비된 봉투를 이용해서 주시면 모아서 발송하겠습니다.
- * 1월 신심미사 없습니다.

